

IIIRI Online Series

극우의 부상과 유럽의 미래

김 흥 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2024. 8. 1

극우의 부상과 유럽의 미래



김 홍 종 |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세 번의 선거와 유럽 극우 정당의 부상

지난 6월 6일 유럽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7월 7일 프랑스 조기 총선 결선투표까지 한 달 동안 유럽은 선거의 열풍에 휩싸였다. 당초 올여름은 유럽의회 선거 외에는 큰 선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5월 리시 슈낙 영국 총리가 하반기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총선을 7월 4일에 하겠다고 발표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프랑스 국민이라면 유럽의회 선거와 자국의 조기 총선 1, 2차 투표까지 세 번의 투표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선거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추세로 이어져 왔던 극우 정당의 득세가 더욱 강화되었다. 중도 자유주의 계열은 몰락하였고, 과거 분열되었던 좌파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비교적 선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정치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보자.¹⁾ 720석 중에서 중도우파 유럽 국민당이 188석으로 1석이 늘어났다. 반면, 중도좌파 사민그룹은 12석 감소한 136석, 중도자유주의 계열은 20석 감소한 77석, 녹색당 계열은 14석

1) 2024년 7월 12일 현재 유럽의회 각 당의 의석은 개표 후 회원국 정당들의 이합집산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된 숫자이다.

감소한 53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물론 중도파 세 당의 합은 여전히 401석으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극우 계열은 유럽 보수개혁당이 16석 늘어난 78석,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계승한 유럽 애국자당은 8석 늘어난 84석이 되었다. 극우 계열은 최소한 162석에 달하여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거듭났다.

노동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영국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412석(득표율 33.7%)을 가져갔으며, 보수당은 121석(23.7%), 자유민주당은 72석(12.2%), 영국개혁당은 5석(14.3%)을 차지했다. 노동당은 참패를 기록한 2019년 총선과 비교하여 불과 1.6%포인트 증가한 득표율로 209석을 늘렸으며, 보수당은 창당 이래 최저 의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극우로 분류되는 영국개혁당은 득표율 순위로 3위에 올라섰으나 의석수로는 5석, 공동 6위에 머물러, 사상 최초로 하원에 진입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미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을 떠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 사라졌음에도 극우의 부상만은 괄목할 만하다. 전국 득표율 3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는 더욱 극적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자유주의 여당 연합은 극우 국민 연합에게 득표율로는 14.6% 대 31.37%, 의석수로는 13 대 30이라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극우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욕심으로 조기 총선을 선택한 마크롱은 그의 결단이 만용에 불과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의 당은 1차 투표에서 국민 연합과 좌파 신민 중전선에 1, 2등을 내어주고 3등으로 몰락했으며, 2차 투표에서는 좌파와 자당 중도파 후보들의 선택적 사퇴로 간신히 2등으로 올라섰다.

결과적으로, 여당 연합은 250석에서 168석으로 축소되었고, 신민 중전선은 149석에서 182석으로 1당이 되었으며, 국민 연합은 비록 3등으로 내려앉았지만 88석에서 143석으로 의석을 크게 늘렸다. 중도파 여권 연합은 종래의 250석을 버리고 168석으로 몰락, 도대체 왜 이 무모한 모험을 감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가 끝난 뒤 국민 연합의 마린 르 펜은 ‘우리의 승리가 단지 미뤄졌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이제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파의 승리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유럽의 상대적 경제위축과 이민·난민 문제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세를 얻어가는 배경에는 유럽경제의 상대적 위상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자료를 기준으로 1995년 대비 2023년 1인당 소득을 비교해 보면,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독일은 111에서 65.7로, 프랑스는 96.8에서 57.6으로, 영국은 80.9에서 60.8로 이탈리아는 72.1에서 46.2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경제의 상대적 위축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바, 극우 정당은 유럽 시민들이 과거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도한 세계화, 유럽 시민들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유럽통합, 그리고 유럽 밖에서 끝없이 들어오는 이민과 난민 탓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민과 난민이 유럽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일련의 충격이 누적된 결과이다. 2004년 EU의 중·동구 확대로 8개 중·동구 국민들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서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기에 놀란 EU는 2007년에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 7년간 거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유럽 경제위기가 한창 진행되던 2014년에 풀려, 당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들의 서유럽행이 폭증했다. 유럽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였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탈출한 시리아인은 670만 명을 넘었는데, 이 중 130여 만 명이 유럽으로 들어왔다. 2015년 EU로 유입된 이주민들 중 난민으로 추정되는 불규칙 이민(irregular migration)은 170만 명을 넘어섰다. 대다수는 시리아 난민이었으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알바니아, 에리트레아 등에서도 난민이 유입되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폭증한 난민은 EU 국가들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난민으로 인한 혼란상은 극우 정당이 인기를 얻게 되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

진화하는 극우 정당

극우 정당들이 부상한 이유는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

다. 극우 정당들은 과거 극단적인 주장을 하여 유럽 시민들의 조롱을 받았으나, 이제는 反세계화와 反이민·난민 외에는 상당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변신을 거듭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걸핏하면 EU를 탈퇴하자고 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극심한 혼란상을 보고 EU를 내부에서 개혁하여 회원국 주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을 바꿨다. 뿐만 아니라 극우 정당들은 친러시아 성향을 보여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거의 대부분의 극우 정당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경제문제, 즉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등 일반 주류정당들이 할 만한 주장을 함으로써 주류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 정당 지도자들도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내세우고 있다.

극우성향의 강화가 가져오는 유럽의 암울한 미래

극우파가 유럽에서 집권하게 되면 EU는 미래 규칙의 제정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며, 녹색정책은 표류하고, 러시아의 대(對) EU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민이 금지되면서 심각한 미숙련노동력의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약화된 유럽통합에 따른 원심력의 작용은 유럽과 EU 전체의 국력 약화로 이어져 중국에 더 밀리고 미국에 더 치이는 신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평화유지를 위한 유럽통합 실험이 실패로 끝난다면 2차 세계대전까지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전쟁이 유럽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큰 시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자 소개

김흥종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과 한러대화 경제통상분과위원을 맡고 있다. 태국개발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과 세계디지털경제기술정상회의(WDET)의 국제자문위원이며, 라이지나대화(Raisina Dialogue), 카우티야경제회의(Kautilya Economic Conclave), Think20, 도하포럼, 아틀랜틱대화, 중국발전포럼 등 다수의 국제포럼에 논객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의장을 역임했으며, 아시아태평양EU학회 회장, 한국APEC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EU학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과거 한국의 FTA 협상에서 협상자문위원이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다수의 정부부처를 자문했다. 주요관심분야는 국제통상, 해외지역연구, 경제성장, 양극화, 국제정치경제, 경제안보 등이다. (Email: hchkim21@gmail.com)

